

## 편집기획자를 흥분시킨, 암울한 미래상에 대한 깨우침

(몇 가지 장면들)

…이번 마케팅 컨셉은 신규 브랜드인 우리 상품이 시장에서 적절한 포션을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진입 초기에 임팩트를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따라서 주 타겟인 20대 커리어우먼을 위한 프로모션을 위해 해당 매체와 협의중이며 비용 역시 내고중입니다.

끄덕끄덕… 이 정도면 됐나… 김씨는 내심 뿌듯해하며 회의실을 빠져나오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.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다.

잘 나가는 가요프로, 웬 미소녀가 나와 어눌한 발음으로 띄엄띄엄 '토킹어바웃' 을 한다. 보기도 안쓰러웠던지 아니면 기획사의 요청이 있었는지 사회자는 웬 미소녀에게 미국생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본 후 몇 개의 영어문장을 요구한다. 당연히 웬 미소녀는 '원도발음' 으로 응답하고 객석에선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. 김씨, 짜증스럽게 채널을 돌린다.

잘 나가는 개그프로, 웬 여자 개그맨이 객석으로 나와 '말도 안 되는 영어' 를 지껄인다. "뭐라구? 제일 비싼 햄버거가 뭐냐구? … 스티븐 스피이버거…" 객석에선 조금 다른 색깔의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…

김지호 | 한겨레신문사 출판부

영어가 '스트레스' 차원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. 대학에 가기 위해, 웬만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, 영어는 필수다. 먹고살려면 영어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찌감치 돈을 들여야 한다. 영어 조기교육을 받아야 되고 외국어학교를 다녀야 하며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.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, 품 나게 먹고살려면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어느 순간 찾아온 것이다. 도대체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? 편집자 생활하면서 원고 받고 흥분해 보긴 참으로 오랜만이다.

이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정곤 교수를 비롯해 다섯 분의 필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'영어독점 자본주의' 의 심각성을 개탄하는 발언들이 오갔던 것을 기억한다. 요지는 그런 것이었다. 5천만이 영어박사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해지는 건가? 정말로 필요한 영역,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전문성을 왜 국가가 나서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가? 결론은 쉽게 났다.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,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것. 노력하고 투자해야 제대로 된 '원도발음' 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이미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은가.

그렇다면 이걸 국가차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. 영어,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만큼 투자해야 한다. 특히나 영어의 등쌀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도대체 어쩔 것인가? 열변을 토하던 또 한 분의 필자 모습이 생생하다. 나는 그 자리에서, 그나마 통쾌했던 점은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어 공용화론이 대세를 이룬다는 가상 시나리오였음을 고백했다. 중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라는 사실이 이토록 새삼스러울 수가!

한국어, 있을 때 잘해야 된다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!

《한국어가 사라진다면》을 통해 영어 사대주의에 휩싸인 한국의 암울한 미래상을 경험해 보면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다. **지은**